

신안군, 제10회 흑산도 홍어축제 내달 4일부터 개최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산물로 가장 향토적이고 지역문화를 잘 대변하는 홍어를 소재로 신안군 대표 관광지인 흑산도 예리항에서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틀간 '2024년 흑산도 홍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홍어 비빔밥 만들기, 만선기원 풍어제, 홍어잡이 어선 해상 퍼레이드, 흑산홍어 시식회, 흑산홍어 짬뽕 경매, 사헌 홍어 먹기 대회 등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들로 진행된다. 흑산홍어 판매관 및 홍보·전시관, 특산물 판매장, 철새전시관, 고래공원 관람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준비돼 있다.

흑산홍어는 육질이 잘지고 부드럽고 담을 삭이는 효능이 있어 기관지, 천식, 소화 기능 개선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흑산도 인근 해역은 홍어 서식 및 산란장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곳에

서 생산되는 흑산홍어는 타지역 어느 홍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남도의 진미(珍味)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2020년부터 '흑산홍어 썰기 학교'(1기~4기)를 운영해 32명이 홍어 썰기 자격증을 취득했고, 수입홍어, 타지역 홍어와의 차별화를 위한 QR코드 부착·유통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흑산홍어를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국가중요어업 유산으로 지정된 흑산 홍어잡이 어업은 전통어업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국비 지원을 받아 홍어 전시관 건립 등 전통어업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에는 흑산 홍어잡이 어선 22척이 604톤의 TAC 물량을 확보해 조업 중이며, 연간 60억 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장흥근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산물로 가장 향토적이고 지역문화를 잘 대변하는 홍어를 소재로 신안군 대표 관광지인 흑산도 예리항에서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틀간 '2024년 흑산도 홍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안군 제공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GS홈쇼핑서 관광상품 판매

함평군이 '제26회 함평나비대축제'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위한 관광상품을 GS홈쇼핑과 연계해 방송 판매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전남창조경제 혁신센터와 협력해 전라남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우수 관광상품 개발 및 GS홈쇼핑 방송판 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관광상품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새마을호 전세 열차를 통해 군산역 또는 광주 송정역까지 이동 후 전세 버스를 이용해 관광객 이동 편의를 제공하며, 함평나비대축제 관람, 돌머리 해수욕장 및 무지개 다리 산책 등 함평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코스로 구성돼 있다.

판매금액은 8만9천원으로 14일 오전 6시 첫방송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GS홈쇼핑에서 방송 판매되며, 생방송 전화주문 또는 GS SHOP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앱 등을 통해서도 구매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로 제26회를 맞는 함평나비대축제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문수 기자

영암군 지역 먹거리 계획 준비 '박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6일까지 (재)영암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관련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

민선 8기 영암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구축·관리하는 '영암군 지역 먹거리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오고 있다.

예측가능한 농특산물 생산, 신선·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재)영암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 먹거리 계획의 큰 가닥을 잡은 영암군은, 지난해 말 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에 들어갔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영암군민 330명이 설문지에 답하는 표본조사 형식으로 센터와 먹거리 정책 관련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는 장이다. 조사 설문지는 지역 먹거리 체계,

통합지원센터 설립, 현 농산물 유통 등을 주제로 주민인식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계획 수립에 이어, 기본조례 제정으로 먹거리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고, 현재 세부 실천과제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 5, 12월에 영암군 공직자들은 배움여행으로 먹거리 정책 선진지인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완주군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을 각각 다녀왔다.

이들은 우수사례 현장에서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역순환경제 실현 농산물 생산·유통·공급 체계 구축 등의 노하우를 배우고, 영암형 농산물 전문유통법인에 접목할 방안도 모색했다.

영암군은 6월 센터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 신청 등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강진, 교통안전 취약 구간 개선사업 추진

강진군은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등 교통안전 취약 구간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도로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강진읍 향교, 동양실업, 해양수산과학원 구간의 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구간들은 도로가 개설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교통사고가 26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

망 사고는 2건이다. 특히 동양실업 구간은 강진역 개통과 함께 교통량 증가가 예상돼 추후 교통 지체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가 필요한 구간이다.

이에 군은 전라남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로 해당 구간들의 정비를 요청하고, 도비 등 총사업비 7억 7천만원을 확보했으며, 도로교통공단 및 강진경찰서와

기본설계(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향교 및 동양실업 구간 2차로형, 해양수산과학원 구간 1차로형 등 총 3개의 회전교차로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함께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3%, 교통사고 발생 수는 28% 감소하고 통행시간은 평균 20.8%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욱 기자

목포시, K-관광 우수상품개발설명회 참가

목포시가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련 관광상품 홍보에 나서며 목포관광 훈풍에 파격 도전했다.

시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K-관광 우수상품개발설명회'에 참가해 목포의 우수 테마 관광상품에 대해 소개했다.

'K-관광 우수상품개발설명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

여행업협회(KATA)에서 주관해 전국 지자체, 여행사, 한국관광공사·재단, 관광콘텐츠업체 등 500여명이 참가해 지자체의 우수 관광 상품과 관광 인프라, 관광 인센티브 제도 등의 정보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날 근대역사관, 해상케이블카, 스카이워크 등 목포시 우수 관광자원을 ▲근대역사관광 ▲해상

관광 ▲야경관광 ▲미식관광 중심 주제별로 정리하고 시가 추천하는 관광코스를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목포시는 현재 내·외국인 단체관광, 수학여행, 해외마이스 단체를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목포 내 음식점, 숙박시설, 유료관광지 등 지원조건을 만족하면 인원과 숙박 일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박성태 기자

무안군, 한나실버센터 개원

무안군(군수 김산)은 최근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한나실버센터(시설장 노준복)가 김산 군수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나실버센터는 무안군 해제면에 위치한 지상 3층 규모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치매전담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야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개원식을 시작으로 요양서비스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는 시설로 자리하기를 바라며, 군에서도 어르신들의 전문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및 부양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재 기자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무안군 의회·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